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901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1월 5일 (음력 9월 26일) 월요일

함평천지 국화 향연 국화 향기와 함께 남도의 가을이 농익고 있다. 4일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찾은 행락객들은 형형색색의 국화가 내뿜는 늦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축제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함평=나명주기자 mjna@

이회창 빠르면 내일 출마 선언

週內 한나라 탈당…무소속 출마 가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무소속 출마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고, 빠르면 6~7일께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이명박 후보측은 이 전 총재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당내 화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표 감싸안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이 전 총재 출마 결심의 막판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출마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박 전 대표측도 이재오 최고위원의 '2선후퇴' 없이는 이 후보측과 화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전 총재의 대변인격인 이흥주 특보는 4일 "이 전 총재께 '최종 결단을 빨리 하셔야 한다'는 말을 드렸고, 이 전 총재도 '알겠다'고 했다"면서 "이 전 총재가 결심을 주면 전광석화와 같이 (대국민 입장발표 장소를) 구할 것"이라고 말해, 이 전 총재의 입장 발표가 당초 예상했던 8일보다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총재가 발표할 '국민께 드리는 글'에는 이명박 후보의 안보관 등을 문제 삼으면서 좌파정권 종식을 위한 진정한 보수세력 결집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총재의 측근 인사들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서울에서 3시간 내외의 거리인 지방에서 대선 행보에 대한 장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직접 대선출마 선언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측은 이 전 총재의 소재 파악에 나서며 설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내 한편에서는 이 전 총재의 출마를 전제로 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종부세 배분 기준 '자립도'서 '자주도'로 바꾸니

전남 내년 국고지원 230억 깎인다

복지·교육 등 주요사업 차질 불가피

정부의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이 오히려 전남도나 전남지역 시·군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비와 영유아보육사업비 등 사회복지비 지원도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 재정여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완화 대책'이 내년부터 적용될 경우 전남도에 지원되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연간 230억6천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 경북, 강원 등의 종부세 교부금도 101억원, 168억원, 158억원씩 각각 감소한다.

이에 반해 수도권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부금은 각기 313억 원, 577억원이 늘어난다. 즉 잘사는 지역에 배분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늘어난 반면, 농촌지역의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종부세 교부금 배분 기준에 적용되던 지자체의 재정여건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사회복지수요와 교육투자수요를 새로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새로 반영된 사회복지수요와 교육투자수요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 ▲재정자주도=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자체 수입과 국고 보조 등 의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대도시 자치구에 비해 국고 보조금 비율이 많은 농촌지역 시·군이 상대적으로 높다.
>
> ▲사회보장비 지수=세출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자치구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을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사회보장 지수가 높다. 반면 농어촌 지역 일선 시군의 세출 예산 규모는 동일한 인구 규모의 자치구에 비해 2~5배가 많아 사회보장비 지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기초생활보장비, 영유아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비에 대한 국고보조비도 전국 대도시 자치구는 오르는 반면, 전남 지역 등 농어촌 시·군은 현재 수준의 지원을 받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사회복지비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과 지자체간 부담 비율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지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율을 10% 상향 또는 10% 하향 조정, 차등 부담토록 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개정령이 시행되면 서울 특별시 6개 자치구와 전국 광역시 41개 자치구는 국고보조율이 10% 상향되는 반면, 전남을 포함한 전국 일선 시·군 지역은 단 한곳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차등 지원기준으로 도입한 '재정자주도' 및 '사회보장비 지수'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

내년 5월부터 백두산 직항로 관광

현정은 회장, 北과 합의
개성관광도 내달 가능

현대그룹은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을 내년 5월부터 시작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양측은 이와 함께 현대그룹이 개성지구에 대한 관광사업권을 갖고 내달 초부터 개성관광을 시작한다는 데 합의하고 금강산 비로봉 관광도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이같은 합의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최승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간의 3일자 서명으로 이뤄졌으며 현대그룹이 배타적 사업권을 향후 50년간 갖고 양측이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합의와 관련 현대아산과 통일부 등으로 이뤄진 정부 합동 실사단이 이달 중순께 백두산 답사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社告

필드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 골프대회

순수 남녀 아마추어 골퍼들의 필드잔치가 될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오는 26일 호남지역 최초의 4계절 양잔디 골프장인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개최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USGTF-KOREA(미국골프지도자협회 한국지부)에서 진행하며 우승자에게는 VIP회원 대우, 티칭프로 실기테스트 합격권 인정 등 푸짐한 상품과 특전도 제공됩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대회일시 : 2007년 11월 26일(월요일) 오전 9시
▲접수마감 : 11월 21일까지 선착순(160명 40팀)
▲참가신청 : 함평다이너스티 홈페이지(hpdynastycc.co.kr) 또는 ☎ 061-320-7700
입금계좌 : 광주은행 727-127-005215 예금주 : 광주일보사
▲참가자격 : 프로선수 또는 아마추어 국가대표 및 상비군이 아닌 남녀 순수 아마추어 골퍼
▲참 가 비 : 1인당 5만원(그린피·캐디피는 개인 부담, 골프모자·식사 제공)
▲경기방식 : 남녀 최강자전 및 신페리오방식, 샷건방식
▲시상내역 : ▷최강자전 우승(남녀 각 1명)-함평다이너스티CC 1년간 VIP회원대우
▷신페리오방식 우승 및 최강자전 준우승(남녀 각 1명)-함평다이너스티CC 1년간 회원대우
▷신페리오방식 준우승(남녀 각 1명)-함평다이너스티CC 1년간 준회원대우
▷홀인원상(최초1인) : 대형 승용차 1대
※그 외 자세한 상품 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특 전 : 남 77타, 여 82타, 장년부(만41~49세) 79타, 시니어(만 50세이상) 82타
US-GTF(미국골프지도자협회) 티칭프로 선발시험 실기테스트 합격 인정

주최 : 光州日報社 주관 : 함평다이너스티CC 진행 : US-GTF(KOREA)